

충무공 이순신의 해양전략 사상 연구

국방정보공학과 2학년 2020032306 송민경

나라의 위태로움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모두 충의에 죽어서 나라를 지킨 영광을 얻자. 무릇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사형선고와 고문으로 인해 망가진 몸임에도, 명량해전을 준비하던 이순신은 장수들과 함께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죽음을 맹세했다. 이토록 누구보다 애민정신과 충성심이 강했던 이순신이 전장에서 쓰러진 지 42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에게 보내는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이순신 장군의 전장을 승리로 이끈 그의 해양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먼저 이순신은 남해안의 특징을 정확히 간파하였다. 우리나라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길고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또 침강해안의 특성상 다도해라고 불릴 정도로 섬이 많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왜군과의 전투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순신은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였다.

위의 특징을 잘 활용한 사례가 바로 ‘량을 지키고 포를 공격’한 점이다.량은 좁은 물길을 뜻하는데, 명량, 노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순신은 남해안의 요지인량을 지켜 적의 길목을 차단하였다. 예로는 여수에서 한산도로 진을 옮겨 견내량을 지킨 것이 있다. 이에 비해 포는 주로 왜군을 공격할 때 중요한 지리적 요지였다. 도망갈 곳이 없는 포구의 입구를 막아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격전을 펼쳐 승리를 거두었다. 옥포, 합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리에 능한 이순신만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밀한 지도를 통해 정교한 전략을 세웠다. 이순신이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조선의 뛰어난 지도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지도가 있어도 읽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그저 종이에 불과하다. 그는 지도를 통한 철저한 분석과 정교한 전략들을 통해 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또한 지형과 그날의 상황에 따라 탁월한 진법을 활용하였다. 진법이란 전투를 할 때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방식을 뜻한다. 당시 기본 진형에는 원진, 직진, 예진, 방진, 곡진이 있었으며, 장사진, 학익진 등의 보조적 진형을 익혀 병력의 구성이나 지형에 따라 전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중 장사진은 긴 뱀처럼 움

직이는 일렬종대 대형이다. 원래 육전을 기초로 발전되어왔으나, 이순신은 해전에서도 이러한 진법을 적절히 활용했다. 포구 안의 적을 공격할 때 지형과 적의 동태에 따라 장사진이나 일자진을 이용하였으며, 적이 포구에서 넓은 바다로 탈출을 시도할 때는 일자진을 이용해 입구를 차단하고 포구 안으로 압박해 들어가면서 포격전을 펼쳤다.

학익진을 이용해 큰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다. 학익진은 일렬로 진격해오는 적을 반쯤 포위하여 맨 앞의 적부터 공격하는 진형이다. 다시 말해 선두부터 집중공격을 하고 뒤따르는 적을 순차적으로 격멸하는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의 포병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아군의 세력이 적과 비슷하거나 우세해야 하고, 적이 먼저 공격해와야 하며, 넓은 바다가 있어야 한다. 이순신은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함으로써 한산대첩과 제2차 당항포해전에서 학익진을 통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조류의 흐름과 바람, 파도가 있어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심지어 적과 아군의 세력을 분석하고 복잡한 해안의 현장에 따라 각각 다른 진법을 사용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진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적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유능한 현장 전문가를 등용해 적절히 활용하였다. 지리전문가를 기용해 바다의 지리와 물때를, 망군과 체탐군을 통해 적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그는 때와 장소에 따른 알맞은 전선을 운용하였다. 적을 유인하려 갈 때는 가볍고 빠른 판옥선을 보냈으며, 적의 퇴로를 지키는 북병선으로는 비교적 큰 배를 배치하였다. 또한 탐망선을 멀리 내보내어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경계하는 역할을 하게 했으며, 적을 위축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작은 고기잡이 배인 포작선을 큰 전선과 섞어 항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순신은 지리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활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진법, 전선 그리고 현장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는 해양전략을 통해 전쟁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 먼저 나를 정확히 알고, 나아가 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간파함으로써 철저한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이순신 해양전략 사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역사를 또 다른 거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순신의 전략 사상을 하나의 역사로만 보기보다 나아가 현재에 더 알맞은 형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훌륭한 유산을 남겨준 이순신 장군 및 여러 조상님께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지니며 앞으로의 일에 교훈 삼아 더 발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